

Customs Focus

이주의
초점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민원
사례

기타
관세소식



연락처 : 02) 516 - 1237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3길 33 (성수동 2가 6층)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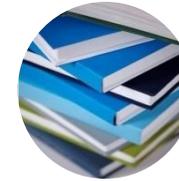
01
이주의 초점



02
관세 무역 NEWS



03
개정 법령



04
민원 사례



05
기타

contents



이주의 초점

1. 2022년 HSK 10단위 품목 수 '12,242개 → 11,293개' 변경



관세·무역 NEWS

2. 말련, 韓·中·베트남産 냉연코일 반덤핑 최종 판정

3. 기표원, 인도 등 17건 수출 애로 해소 추진

4. "탄소중립, 중국은 이렇게 준비한다"

5. 무역협회, 선복 마련 위해 스타트업(밸류링크유)과 손잡았다

6. 인천국제공항, 지난해 국제여객 1,196만명으로 '세계 8위'

7. 로봇이 상하차·드론은 배달, 곧 만날 '물류의 미래'



개정법령

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민원사례

10. 핀테크 업체를 통한 송금 가능 여부 관련 질의

11. 위험물·유해화학물질 반입 가능 여부 등 관련 질의



기타 관세소식

12. 무역협회·서울세관, FTA 인증수출자 등 수출지원 협력

13. EU, 역내 반도체 생산 확대 위해 보조금 규제 완화

Cover

2022년 HSK 10단위 품목 수 '12,242개 → 11,293개' 변경 - I

이주의
초점

식용 곤충 등 341개 품목 신설 ... 필름카메라 등 1,290개 품목 삭제
기재부, 「HSK」·「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HS 2022'에 따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의 10단위 품목수가 현재 1만 2,242개에서 1만 1,293개로 조정될 예정이다.

관세·무역
NEWS

기획재정부는 세계관세기구(WCO)의 새로운 품목분류 체계(HS 2022) 적용을 앞두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11월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법령

WCO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 협약)」에 따라 전 세계 교역물품의 통관 및 통계작성 등을 위해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를 시행하고 있다.

민원
사례

6단위 코드로 구성된 품목분류 체계는 무역거래량 증감에 따른 품목코드 변경, 신상품 출현 등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5년 주기로 개정하며, 가입국은 자국 상황에 맞게 이를 세분화해 사용할 수 있다.

기타
관세소식

우리나라의 경우 10단위 코드로 세분화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Harmonized System of Korea)」(기획재정부 고시)를 운영하면서 해당 품목분류에 맞춰 FTA 협정관세율 및 WTO 등에 의한 양허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Cover

2022년 HSK 10단위 품목 수 '12,242개 → 11,293개' 변경 - II

이주의
초점

'2022년 HSK' 1만 1,293개 품목 운영

기재부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WCO의 'HS 2022'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핵심 전략산업(소·부·장 품목 등) 및 환경·사회안전(「폐기물관리법」 관리대상 물품 및 초소형 특수카메라 등) 관련 품목 등을 신설했다.

관세·무역
NEWS

이번 개정으로 2022년 10단위 HSK 품목 수는 현행 1만 2,242개에서 949개가 감소한 1만 1,293개로 변경(신설 341개, 삭제 1,290개) 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식용 곤충, ▲전자폐기물, ▲탄소섬유, ▲3D 프린터 등 341개 품목을 신설하고, ▲필름카메라, ▲전화응답기, ▲지구의(地球儀) 등 1,290개 품목을 삭제한다.

개정
법령

수리·개조 목적 싱가포르로 보낸 항공기 부품, 재수입 시 관세 면제

민원
사례

한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HSK 개정 내용을 반영해 우리나라가 맺은 모든 FTA의 관세율표를 수정하고,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편의를 끌어올리기 위한 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기타
관세소식

Cover

2022년 HSK 10단위 품목 수 '12,242개 → 11,293개' 변경 - III

이주의
초점

먼저 「HSK」 개정에 따른 신설·변경·삭제 품목을 그간 우리나라가 맺은 모든 FTA에 반영해 협정관세율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리·개조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일시수출됐다가 재수입하는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한다. 싱가포르는 국내 항공기 부품 3위 수입국이며, 한·싱가포르 FTA 규정에 따라 국내 법령을 통해 일시 수출입물품 관세 면제가 가능하므로 내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해당 관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관세·무역
NEWS

아울러 수출기업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한다.

현재 관세청은 관련 고시에 근거해 국내 제조 사실만으로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품목(제조과정을 통해 완성품의 품목번호가 원재료의 품목번호와 다르게 변경되는 경우 제조과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정
법령

앞으로는 해당 제도의 근거를 법령으로 상향하고 해당 제도에서 필수 제출하던 '원산지소명서'의 제출까지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민원
사례

이와 함께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 취소요건 명확화, 원산지 사전심사 업무기관 조정 등 FTA 이행과 관련된 일부 규정도 정비할 계획이다.

기타
관세소식

Cover

2022년 HSK 10단위 품목 수 '12,242개 → 11,293개' 변경 - IV

이주의
초점

이 외에도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등 3개 대통령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국민 의견수렴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무역
NEWS

● HSK 10단위 코드 예시(제8703.23-1010호, 2,000cc급 세단 승용차) ●

국제공통 코드	① 8703 → 승용자동차가 분류되는 4단위 호(heading)	
	② 8703.23 → 1,500cc ~ 3,000cc 가솔린 차량이 분류되는 6단위 소호(sub-heading)	
국내 추가 코드 포함 HSK	③ 8703.23-10 → 2,000cc 이하 차량이 포함되는 통계용 코드	
	④ 8703.23-1010 → 신차(중고차 제외)가 포함되는 통계용 코드	

개정
법령

민원
사례

기타
관세소식

출처 - CUSTRA

Cover

말련, 韓·中·베트남産 냉연코일 반덤핑 최종 판정 - I

韓 기업, 최대 21.64% 부과 ... 현대제철은 11.55%·포스코 0%

이주의
초점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는 10월 8일 한국, 중국, 베트남 등 3개국에서 수입되는 합금 및 비합금강 냉연코일(CRC)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세·무역
NEWS

구체적으로 0.20~2.60mm, 너비 700~1,300mm의 합금 및 비합금강으로 된 냉연코일 수입품으로 HS Code는 7209.15.0000, 7209.16.1000, 7209.16.9000, 7209.17.1000, 7209.17.9000, 7209.18.9900, 7225.50.1000, 7225.50.9000 등이 해당된다.

이번 조치로 말레이시아 관세청(RMCD)은 올 10월 9일부터 2026년 10월 8일까지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개정
법령민원
사례기타
관세소식

이주의
초점

● 냉연코일 반덤핑관세 부과 현황 ●

설명 및 HS CODE	국명	주요 수출기업명	관세율(%) CIF 기준
두께 0.20~2.60mm, 폭 700~1,300mm 합금 및 비합금강의 냉연코일(CRC) HS Code 7209.15.0000, 7209.16.1000, 7209.16.9000, 7209.17.1000, 7209.17.9000, 7209.18.9900, 7225.50.1000, 7225.50.9000	한국	현대제철	11.55
		포스코	NIL
		기타	21.64
	중국	Bengang Steel Plates Co., Ltd	42.08
		BX Steel POSCO Cold Rolled Sheet Co., Ltd.	35.89
		Jiangsu Shagang International Trade Co., Ltd.	42.08
		기타	42.08
	베트남	China Steel Sumikin Viet Nam Joint Stock Company	33.70
		POSCO - Viet Nam Co., Ltd.	7.42
		기타	33.70

출처 :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 한국産 반덤핑관세부과 현황 ●

구분	HS Code 및 관련 현황
2018년	- HS Code : 7219.31, 7219.32, 7219.33, 7219.34, 7219.35, 7220.20.10, 7220.20.90.00 - 내용 : 우리나라, 중국, 대만, 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0.3mm에서 6.5mm 사이의 두께와 1,600mm 이하의 너비를 가진 코일, 시트 및 냉간 압연된 스테인리스강과 관련해 덤핑 마진이 존재 - 근거 : 상기 항목들의 수입으로 인해 말레이시아 자국 기업들이 피해를 봄.
2019년	- HS Code : 7209.15.00.00, 7209.16.90.00, 7209.17.90.00, 7209.18.99.00, 7225.50.90.00 - 품목 : 우리나라, 중국, 대만, 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폭 1300mm 이상의 철 또는 비합금강의 냉연 코일 - 근거 : 말레이시아 자국 기업들은 해당 국가들로부터 수입된 상품들의 절대적 수량이 증가했으며 해당 수입품들의 덤핑으로 인해 시장 점유율 감소, 가격 인하, 낮은 생산, 수익 감소, 유동자금 감소, 재고 증가, 총 자산 감소 등의 증거를 제출
2020년	- HS Code : 3907.61, 3907.69, 3907.69.90 - 내용 : 우리나라, 중국, 대만, 태국으로부터 수입돼 고유 점도가 0.70데시리터/그램 이상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상품과 관련해 덤핑 마진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조사 시행 - 근거 : 1) 대상 상품의 수출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으며, 2)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말레이시아 기업들이 해당 상품을 수입하게 되면서 피해를 입은 사실을 기반으로 자료 제출
2021년 (1분기)	우리나라,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원산지 또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최종 결정에 관해 통지, 조사 결과 자국산에 대한 피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며, 해당 품목에 임시적으로 부과됐던 반덤핑관세(15.5%)가 모두 해제됨.

출처 - CUSTRA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민원
사례

기타
관세소식

Cover 기표원, 인도 등 17건 수출 애로 해소 추진 - I

'제3차 WTO TBT 위원회' 참가

이주의
초점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10일 열린 '제3차 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에 참가해 17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섰다고 밝혔다.

관세·무역
NEWS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EU, 호주 등과 공조해 기술규제 17건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했다.

STC 안건에는 인도의 UHD TV 에너지 효율 인증, 화학섬유 제품 BIS 인증, EU의 경우 광원 에코디자인, 중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표시사항과 의약품·의료기기 등록비, 프랑스의 포장재 및 인쇄물에 미네랄 오일 금지법, 말레이시아의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라벨 QR 코드 부착 등이 포함됐다.

개정
법령

기표원은 "앞서 올 2월과 6월 열린 1·2차 WTO TBT 위원회를 통해 인도, 터키, 프랑스, 베트남 등 7개국으로부터 연간 약 41억 달러 규모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16개 해외 기술 규제에 대해 규제개선, 시행 유예, 규제 명확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FTA TBT 등 기술규제 협력 채널을 활용해 미해결 의제를 계속해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민원
사례기타
관세소식

● WTO TBT 주요 성과(7개국 16건) ●

국가	규제명	요구사항	협약 결과(기대효과)
인도	안전유리 BIS 인증	코로나19로 인한 인증지연 등을 감안 규제시행을 6개월 이상 유예 또는 일 정기간동안 공장심사 면제 등 대체방 안 요청	(시행 유예) 12개월 시행 유예(2021.4. → 2022.4.) ▶ 시행일 연기로 판매 불가 → 판매 가능 ▶ 2019년 수출액 : LG, 삼성 부품업체 등 3억 달러
	아세톤 BIS 인증 (2·3차대응)	코로나19로 인한 공장심사 및 인증지 연을 감안해 규제 시행을 6개월 추가 연기 요청	(시행 유예) 6개월 시행 유예(2021.3. → 2021.9. → 2022.3.) ▶ 시행일 연기로 판매 불가 → 판매 가능 - 1차 시행 유예(2020.9.16. → 2021.3.14.) - 2차 시행 유예(2021.3.14. → 2021.9.14.) - 3차 시행 유예(2021.9.14. → 2022.3.13.) ▶ 2020년 수출액 : LG, 삼성 LG화학, 금호피앤비화학 등 상반기 500만 달러
	탄산칼륨 BIS 인증 (2차대응)		(시행 유예) 12개월 시행 유예 (2021.3.14. → 2022.3.13.) ▶ 시행일 연기로 판매 불가 → 판매 가능 - 1차 시행 유예(2020.12.16. → 2021.3.14.) ▶ 2020년 수출액 : 유니드 등 1,200만 달러

국가	규제명	요구사항	협약 결과(기대효과)
인도	스티렌 BIS 인증		(시행 유예) 6개월 시행 유예 (2021.5.3. → 2021.11.26.) ▶ 시행일 연기로 판매 불가 → 판매 가능 ▶ 2020년 수출액 : 롯데케미칼, LG화학, 한화토탈 등 5,600만 달러
	아크릴로니트릴 BIS 인증		(시행 유예) 6개월 시행 유예(2021.5.3. → 2021.11.26.) ▶ 시행일 연기로 판매 불가 → 판매 가능 ▶ 2020년 수출액 : 동서석유화학, 태광산업 등 3,000만 달러
	무수말레인산 BIS 인증		(시행 유예) 6개월 시행 유예(2021.5.3. → 2021.11.26.) ▶ 시행일 연기로 판매 불가 → 판매 가능 ▶ 2020년 수출액 : 용산화학 등 800만 달러
	폴리에틸렌 BIS 인증		(시행 유예) 6개월 시행 유예(2021.10.11. → 2022.4.5.) ▶ 시행일 연기로 판매 불가 → 판매 가능 ▶ 2020년 수출액 : 한화솔루션, 한화토탈 등 5,000만 달러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BIS 인증	코로나19로 인한 인증지연 등을 감안해 규제시행을 6개월 이상 추가 연기하거나 대체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	(시행 유예) 6개월 시행 유예(2021.10.11. → 2022.4.5.) ▶ 시행일 연기로 판매 불가 → 판매 가능 ▶ 2020년 수출액 : 한화솔루션, 한화토탈 등 1억 700만 달러
	선형알킬벤젠 BIS 인증		(시행 유예) 6개월 시행 유예(2021.10.11. → 2022.4.5.) ▶ 시행일 연기로 판매 불가 → 판매 가능 ▶ 2020년 수출액 : 이수화학 등 3,400만 달러

프랑스	생산자책임제도제품의 라벨링규제	프랑스 향 제품에만 별도로 재활용 분류방법을 포장재에 반드시 부착해야 해서 해당 요구사항을 매뉴얼에 표기 가능하도록 규제개선 요청 및 대체 기호(EU 그린닷 마크) 사용에 대한 벌금 부과 조항 삭제 요청	(시행 유예) 시행시기 무기한 연기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2019년 수출액 : 삼성전자, LG전자, 금호타이어, LG화학 등 14억 달러
터키	전기전자제품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라벨 규제	EU 에코디자인 규제 도입시기에 맞춰 시행(2021.3.)함에 따라 준비기간 부족으로 대응이 어려운 관계로 유예기간 부여 또는 합리적인 대안을 요청	(규제 개선) 터키·EU 관세동맹 협정에 따라 시행 유예는 어려운 입장을 표명, 단 유연한 사후관리를 적용하기로 함. ▶ 수출 시 통관불허, 사후관리 불합격 등 불확실성을 제거 ▶ 2020년 수출액 : LG, 삼성 등 7억 달러
미국	독성물질관리법 Deca-BDE 물질 규제	특정 예외조항을 제외한 모든 Deca-BDE 및 함유제품을 금지하나, 규제 대상범위가 불명확하여 정보제공 요청	(정보 제공) 건설장비 및 산업용차량 모두 동 규정에 적용되며, 규제 시행일(2021.1.) 이전 생산된 제품 및 부품은 미적용 ▶ 수출준비 필수사항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
		건설장비 및 산업용차량 부품도 단계적 시행대상에 추가할 것을 요청	(정보 제공) 'Motor Vehicle'과 동일하게 부품의 경우 단계적으로 시행 ▶ 수출준비 필수사항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 ▶ 2020년 수출액 :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볼보 등 4억 500만 달러

Cover 기표원, 인도 등 17건 수출 애로 해소 추진 - V

이주의
초점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민원
사례

기타
관세소식

필리핀	에너지라벨링 프로그램 (PELP)	제품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인증 갱신 시 중복된 제품시험 없이 최초 시험성적서를 인정할 것을 요청	(정보 제공) 제품사양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최초성적서 인정 → '20년 수출액 : 삼성전자, LG전자 등 2,200만 달러
사우디 아라비아	에어컨 에너지효율 규제	- AC설정 정보 요구사항 제외 요청 - 제품 변경사항이 없을 시 최초시험 성적서 인정 요청	(규제 개선) AC설정 정보를 제품패키지로 제공하는 것을 삭제, SASO등록 시스템으로만 제출하도록 변경 ▶ 2019년 수출액 : 삼성, LG 등 1,000만 달러
	RoHS 규제	- 세부규제 내용 질의, 제출문서 구체화, 빠른 NB선정 요청 - 2022년 7월까지 시행 유예 요청	(정보 제공) 인증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기술자료 요구사항 안내, 제품 변경이 없을 시 최초 시험성적 인정 (시행 유예) 관보게재일로부터 1년 이후 시행 ▶ 2020년 수출액 : 약 3억 달러

출처 - CUSTRA

Cover

“탄소중립, 중국은 이렇게 준비한다” - I

KOTRA,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 추진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 발표

이주의
초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 또한 올 7월 16일 약 2,000개社가 참여해 40억톤 규모의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출범시키고 글로벌 탄소중립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개정
법령

이와 관련해 KOTRA는 11월 10일 발표한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 추진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어떻게 탄소중립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기업이 잘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중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 운영 현황과 산업별 영향에 대해 정리했다.

중국은 거래소 도입 초기에는 탄소배출권 거래 규범화를 통해 의무감축에 주력하고, 향후 상쇄 배출권을 통한 자율감축과 연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원
사례기타
관세소식

Cover

“탄소중립, 중국은 이렇게 준비한다” - II

이주의
초점

현재는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전력발전 산업을 중심으로 배출권 거래를 적용하고 있지만, 2025년까지 철강·화학공업 등 8대 高에너지 소모 산업(전력, 비색금속, 건축자재, 철강, 석유화학, 화학공업, 제지, 항공)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중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은 에너지, 철강, 화학공업 등 산업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2020년 기준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전체 발전량의 61%를 차지해 에너지 산업의 탄소배출량이 46억톤을 넘어섰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 2060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을 전체의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세계시장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철강산업은 2020년 탄소배출량이 18억 톤에 달하고 있다.

개정
법령

따라서 허베이(河北)성 등 14개 주요 생산지역은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이미 철강 감산 조치를 시작했다.

민원
사례

구체적으로 베이징 인근의 허베이성에서는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깨끗한 하늘을 보여주기 위해 올해 철강생산량을 전년대비 2,171만톤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전력, 철강 등 탄소배출 규제 대상 업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기타
관세소식

Cover

“탄소중립, 중국은 이렇게 준비한다” - III

또한 그 과정에서 태양광·수력·풍력 등 청정에너지 발전설비와 철강 전기로 도입, 철스크랩 재활용 등 관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의
초점

김태호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중국이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계획을 실행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에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같은 위기와 유망시장 진출의 기회가 동시에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민원
사례

기타
관세소식

출처 - CUSTRA

Cover

무역협회, 선복 마련 위해 스타트업(밸류링크유)과 손잡았다 - I

긴급 물류 지원 위해 중소기업 전용 선복 2차례 지원

이주의
초점

한국무역협회가 11월 9일 국내 디지털 물류 플랫폼 기업인 '밸류링크유'와 함께 수출 중소기업의 해상운송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세·무역
NEWS

무역협회는 올 7월부터 국내 대기업·물류기업과 함께 수출 중소기업 긴급 물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도 목적은 동일하지만 스타트업과 처음으로 협력해 운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화물 추적, ▲선박 스케줄 조회 등의 업무영역에서 더 나아가 직접적인 해상운송 지원과 선복 제공에 나섰다 는 점에 의의가 있다.

개정
법령

이들 기관은 올 12월 미국 LA行 배에 중소기업 전용 선복을 두 차례 지원하기로 했다.

민원
사례

추가 선복 확보는 최근 미주 항로 선복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희소식일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선박은 오는 12월 4일 광양항 출발-美 LA항 도착 편이고, 2차 선박은 12월 5일 부산항 출발-美 LA항 도착 편이다.

기타
관세소식

Cover

무역협회, 선복 마련 위해 스타트업(밸류링크유)과 손잡았다 - II

이주의
초점

12월 출항 선박에 수출화물 운송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무역협회 화물예약 데스크(02-6000-5754) 등을 통해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밸류링크유는 단기적으로 부산·광양항과 미주 서안(롱비치/LA)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시작으로 유럽과 중동, 동남아시아 권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밸류링크유와의 협력으로 무역협회의 물류 지원사업도 한 단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협회는 7월부터 국내 대기업·물류기업과 함께 수출 중소기업 긴급 물류 지원사업을 실시 중이며, 이를 통해 현재까지 148개 중소기업의 수출화물 운송을 안정적으로 진행했다.

무역협회 이준봉 물류서비스실장은 “밸류링크유가 현재 외국적 선사와도 선복 마련을 협의하고 있는 만큼 향후 유럽·중동 등의 권역으로도 서비스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을 발판으로 향후 국내 물류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밸류링크유 관계자는 “우리 플랫폼을 통해 해운·물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자율 무료 거래는 물론 수출계약, 출·도착지 물류 서비스, 오프라인 고객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CUSTRA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민원
사례

기타
관세소식

Cover

인천국제공항, 지난해 국제여객 1,196만명으로 '세계 8위' - I

2001년 개항 이후 최초로 '아시아 지역 1위' 달성

이주의
초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여객이 1,196만명을 기록했으며, 국제여객 수송순위가 2019년 세계 5위에서 8위,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천국제공항 개항(2001년) 이후 처음으로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관세·무역
NEWS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국제여객 수요가 급감(75.7%↓)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여행이 자유로운 유럽공항의 국제여객 순위가 상승하면서 인천국제공항은 2019년 세계 순위 5위(7,000만명)에서 8위(1,200만명)로 하락(83.1%↓)했다.

개정
법령

두바이공항(UAE)은 2019년에 이어 1위를 유지했으며, 2위 암스텔담(네덜란드)과 3위 런던히드로(영국)공항은 근소한 차이로 순위가 바뀌었다.

다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이 그간 항공허브 경쟁을 벌여왔던 첵랍콕공항(홍콩)과 창이공항(싱가폴)을 제치면서,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운송강국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민원
사례

또한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국제항공화물 실적은 276만톤으로 세계 3위를 기록하면서 세계 1위 첵랍콕공항(홍콩), 2위 푸둥공항(중국)에 이어 명실상부한 글로벌 Top3 화물공항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

기타
관세소식

Cover

인천국제공항, 지난해 국제여객 1,196만명으로 '세계 8위' - II

이주의
초점

한편 우리나라의 올 3분기 항공여객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해 2분기(572만명, -81.5%)에 최저점을 지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6% 증가한 909만명(국제선 92만명, 국내선 816만명)을 기록했다.

특히 국내선 항공여객과 국제화물(수하물 제외)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분기 실적의 각각 98.1%(816만명) 및 120.2%(84만톤) 수준을 보였다.

관세·무역
NEWS

국제선 여객은 2019년 3분기 대비 96.0% 감소한 상태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기저효과로 41.8% 증가한 92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지역별로는 미주? 유럽? 대양주 등 전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개정
법령

항공화물은 컨테이너선 공급 부족에 따른 국제화물 수요 증가와 국내 여행 증가에 따른 수하물 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제·국내화물 모두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9% 증가한 92만톤을 기록했다.

민원
사례

국토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무착륙 관광비행 다변화, 화물기 운항 규제 개선, 바이오 의약품 운송 승인 간소화 등 정책 지원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노력을 해왔다"며,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방역절차 간소화 등 항공수요 회복을 준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항공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관세소식

출처 - CUSTRA

Cover

로봇이 상하차·드론은 배달, 곧 만날 '물류의 미래' - I

생활물류 서비스사업 운송수단으로 로봇·드론 포함 합의

이주의
초점

로봇이 상하차한 택배물품을 드론을 이용해 배송차량 진입이 힘든 산간도서 지역에 배송하는 날이 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용달협회, 통합물류협회 등을 포함한 5개 생활물류이해관계자와 민간으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해 5차례 전체 회의를 실시하고, 드론·로봇, 법제화 관련 중립전문가와 1차례 회의를 거쳐 11월 9일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운송수단으로서 드론과 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이해관계자 최종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7월 27일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운송수단이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돼 드론 및 로봇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부재했으며, 이는 올해 1월 법 제정 당시 택시, 승용차, 승합차 등 포함 여부에 대한 쟁점으로 인해 운송수단을 최소한으로 규정함에 따라 드론 및 로봇이 법률상 정의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7월 30일 열린 1차 회의를 통해 드론·로봇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8월 27일 3차 회의에서 산간 오지, 주상복합 등 고밀도 주거지역, 심야 시간대 등 사람이 배송하기 어려운 지역 또는 시간대의 드론·로봇의 활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10월 14일 4차 회의를 통해 생활물류서비스 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의 합의문 초안을 논의해 11월 9일 5차 회의를 통해 이해관계자 최종 합의 및 서명을 이끌어 내게 됐다.

개정
법령민원
사례기타
관세소식

Cover

로봇이 상하차·드론은 배달, 곧 만날 '물류의 미래' - II

이주의
초점

이번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기존 업계와의 상생, 생활물류종사자 보호 및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북 김천시에서는 드론·로봇을 활용한 실증사업을 통해 미래형 운송수단의 생활물류서비스 활용에 대한 사회적 타협점을 모색하게 된다.

관세·무역
NEWS

이번 과제는 실증사업 등을 비롯해 앞으로 드론·로봇 배송의 상용화 대비 선제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제도적 근거를 모색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로봇을 통한 상·하차, 분류 등 활용, 드론을 통한 도서·산간 격·오지 배송 등 드론·로봇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 후생 제고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개정
법령민원
사례기타
관세소식

출처 - CUSTRA

Cover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539호, 일부개정]

이주의
초점

◇ 개정이유

최근 글로벌 반도체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2메가와트(2MW) 급 전력변환장치의 안전성을 시험하는 설비의 도입·구축이 지연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정격 용량이 1메가와트(1MW)를 초과하는 전력변환장치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추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개정내용의 적용대상을 당초 2021년 12월 1일 이후 출고·통관분에서 2022년 12월 1일 이후 출고·통관분으로 늦추는 한편, 기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일치화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관세·무역
NEWS

◇ 주요내용

1) 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2) 주요 개정 내용

○ 2MW급 시험설비 구축 가능시점을 고려하여 KC인증 시행시기 연장*(부칙)

* 운용요령 부칙: (기존) `21.12.1. 이후 적용 → (개정) `22.12.1. 이후 적용

개정
법령민원
사례

출처 - 법제처

기타
관세소식

Cover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7호, 2021. 11. 22]

이주의
초점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반도체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2메가와트(2MW) 급 전력변환장치의 안전성을 시험하는 설비의 도입·구축이 지연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정격 용량이 1메가와트(1MW)를 초과하는 전력변환장치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추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개정내용의 적용대상을 당초 2021년 12월 1일 이후 출고·통관분에서 2022년 12월 1일 이후 출고·통관분으로 늦추는 한편, 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의 경우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대상이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고, 안전기준준수 대상생활용품에는 국가통합 인증마크(KC마크) 도안을 표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관세·무역
NEWS개정
법령민원
사례기타
관세소식

출처 - 법제처

Cover

핀테크 업체를 통한 송금 가능 여부 관련 질의

이주의
초점

□ (질의)

∴ 유럽에서 물품을 수입해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품대금을 핀테크 업체를 통해 송금하려는데, 핀테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송금증으로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 수입물품의 대금은 핀테크 업체를 통해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관세·무역
NEWS

다만 외화를 지급 또는 영수하는 업무, 즉 외국환업무(소액 해외 송금업무 포함)를 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된 업체여야 하므로, 해당 핀테크 업체가 외화 송금이 가능한 업체인지 먼저 확인 후 송금하기 바랍니다.

개정
법령

일반적으로 핀테크 업체의 경우 소액 해외 송금업무가 가능하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등록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로를 참고해 해당 핀테크 업체의 소액 해외 송금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1332)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민원
사례

기타
관세소식

출처 - CUSTRA

Cover

위험물·유해화학물질 반입 가능 여부 등 관련 질의

이주의
초점

□ (질의)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인해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보관 장소가 아닐 경우 신고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세 창고 내 유해화학물질 허가를 신청한 상태이며, 투자 및 시설변경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해당 규정과 관련해 별도 유예기간이 있나요?

관세·무역
NEWS

□ (답변)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31조(승인기준)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은 도착지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물품을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개정 내용은 위험물 또는 유해화학물질 여부를 보세운송 신고(승인)단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및 시스템이 개정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개정
법령

즉 기존 고시에서 위험물 또는 유해화학물질은 해당 물품을 취급할 수 있는 곳임을 명시하고 있고, 개정 고시 및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해당 사실을 보세운송신고(승인)단계에서 전송할 수 있음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고시 개정 내용은 보세운송 승인 여부와 관련된 사안일 뿐이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 전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의 반입 가능 여부는 관할 부처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 소방청 (044-205-7482)

- 「화학물질관리법」 : 환경부 (044-201-6837, 6844)

민원
사례

출처 - CUSTRA

기타
관세소식

Cover

무역협회·서울세관, FTA 인증수출자 등 수출지원 협력

무역협회·서울세관, FTA 인증수출자 등 수출지원 협력

이주의
초점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서울본부세관과 '자유무역협정(FTA) 인증수출자 및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기업 등 중소 수출 유망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신승관 무역협회 전무이사과 성태곤 서울세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무역협회는 서울세관이 공인한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전시관 구성 및 홍보, 바이어 매칭, 화상상담 등 비대면 마케팅을 지원한다.

관세·무역
NEWS

무역협회는 협약식을 계기로 이날 'FTA 특별전시관'(FTA·AEO Expo)을 기업 간(B2B) 거래알선 플랫폼인 트레이드코리아에 함께 개설했다. 특별전시관에는 FTA 인증 수출자 및 AEO 기업 98개사가 입점했으며 입점한 기업들은 무역협회의 마케팅 서비스와 서울세관의 수출지원 프로그램, 관세행정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
법령민원
사례기타
관세소식

출처-뉴시스

Cover

EU, 역내 반도체 생산 확대 위해 보조금 규제 완화

이주의
초점

EU, 역내 반도체 생산 확대 위해 보조금 규제 완화

유럽연합(EU)이 역내 반도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규제를 완화한다.

관세·무역
NEWS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이 자동차 등 역내 산업 전반에 영향을 초래하자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쉬워지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엄격한 보조금 관련 규정 때문에 신규 반도체 공장 건설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는 업계 주장을 수용해 보조금 지급을 통해 역내 반도체 생산거점 확대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회원국의 보조금이 역내 공정경쟁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보조금 금지 또는 추징을 명령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개정
법령

EU 집행위는 일부 반도체 관련 프로젝트처럼 '역내 중요 공동 이해관계 프로젝트(IPCEI)'로 지정되면 관련 보조금 규정을 완화하되 보조금 지급은 첨단 반도체 분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번 보조금 규제 완화는 첨단 반도체와 함께 범용 반도체 생산시설도 포함하고 있다.

EU 집행위의 규제완화 조치는 회원국 경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하거나 특정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허용한 EU 기본조약 제 107조 제3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보조금 승인 근거로 활용된 바 있다.

민원
사례기타
관세소식

출처-한국무역신문

Customs Focus

JOYANG
CUSTOMS
SERVICE CORP.



※ 자료 출처 : 관세무역정보,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등

